



뜨는 절 '노하우'

즐거운 도량, 일주문을 열어라!

사찰은 더 이상 불자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예불과 기도 등 종교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의 문화적 요구에 발맞춰 '지금-여기' 문화 생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많은 사찰들이 각자의 전통과 개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행사를 준비, 양적·질적 면에서 다양한 불거림과 즐거움을 제공하며 사람들을 산문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 일주문을 활짝 열고 '문화포교'에 적극 나서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뜨고있는 사찰들을 소개한다.

수행·출판 독서문화 부흥 앞장

도피안사 경기 안성시 죽산면 용성리에 자리 잡은 도피안사는 불자들의 수행과 문화 공동체다. 2000년 완공돼 '사찰 건축의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는 향적당과 불자들이 수행생활과 취미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꾸며진 수광원에는 문화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들은 이곳에 거머쥐고 글을 쓰거나 작품을 구상하기도 하고, 자신의 수행에 매진하기도 한다. 도피안사는 지난 7월부터 범국민적 독서캠페인 '종이거울 자주보기 운동'으로 출판과 독서문화 부흥운동도 펼치고 있다. (031)676-870

국사추대의식, 음악회 격년 개최

사나사 양평 사나사는 2년전 보우 스님 탄생 7백주년을 기념해 양평불교사암연합회와 공동주최로 '고려시대 국사 추대의식 및 아사행렬'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도 10월 11일 보우 스님 국사 추대 재현을 위해 사나사 신도회와 양평군 청년회원 3백여명이 한데 모여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아사, 의장대, 문무관, 군병 등의 전통 복장을 갖추고 양평 읍내와 사나사 일대를 행렬했다. 산사음악회와 함께 사려져 가는 전통의식을 되살리고자 '추모다례제'와 '학술세미나'도 열리고 있다. (031)772-5182.

천미희 · 박원규 ·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양평 사나사의 태고보우 탄생 700주년 기념 국사 추대식 재현 모습.

산사음악회 지역대표 축제로 정착

미항사 미항사 산사음악회는 지역민과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해, 매 회 500명 이상의 사부대중이 참석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기획부터 구체적인 행사 준비에 이르기까지 인근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문화 축제의 대명사가 됐다. 또한 괘불제, 탁본전 등의 문화체험 행사도 곁들여 찾는 이가 많다. 인성교육, 참선 등을 포함하는 '어린이 한문학당'과 내·외국인 대상의 템플스테이 또한 인기가 높다. (061)533-3521

심곡암 북한산 심곡암은 서울 시민들에게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민에게 산사의 평안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기획해 모두가 즐겨찾는 '자연 속 문화공간'이 됐다.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열리는 산꽃축제와 단풍문화축제가 심곡암의 대표적인 문화행사. 축제의 중심은 불자 문화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산사음악회다. 선서화 전시와 다도시연 등을 함께 선보여 매 회 풍성한 무대를 연다. 불심과 자연, 그리고 예술이 어우러지는 서울의 문화축제로 각광받고 있다. (02)914-8860

계룡산 감사 대전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계룡산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산사음악회를 4년째 꾸준히 열고 있다. 올해도 10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산과 사람, 그리고 자연'을 주제로 장사익씨와 대전지역 가수들이 출연한 산사음악회를 연다. 이외에도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감사 강당에서 감사 소장 탁본 및 불화 전시회와 학술세미나 등을 마련,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감사와 불교를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041)857-8981.

미술관·서점 도시인에 친근감

법련사 법련사는 74년 개원 이후, 산사의 닫힌 공간만을 떠올리던 시민들에게 '도시 사찰의 문화포교'를 제시해 온 사찰이다. 특히 법련사 내의 불일미술관은 96년 종교계 최초 전문전시공간으로 선보인 이래 불교미술품, 도예품, 시서화, 사진 등을 전시하며 주목받아 왔다. 또 일반 작가들에게도 대한해, 불자가 아닌 일반인도 자연스레 법련사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법련사 내에 자리잡은 불일서점도 문화포교에 일익을 담당했다. 불서 전문서점이 없었던 84년 당시 문을 열어 문서포교의 기초를 다져왔다. 또 불일문화회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태극권과 선무도 수련을 선보이기도 했고, 매 주말 불일시민선방에서는 참선과 경전강의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02)733-5322

음악회 매년 두번, 서도·다도회도

수원포교당 1999년 용주사 수원 포교당에 불교문화원이 문을 열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이 문화원에는 극장식 법당인 만불보전이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2회씩 정기 음악회가 열린다. 오름 관현악단과 대중음악인들이 모여 봉축을 기념하는 부처님오신날 기념음악회, 성도재일을 축하하는 '젊은 불자음악인들을 위한 음악회'가 그것이다. 또한 문화포교의 1번지 답게 사찰의 역사와 함께 해온 가흥빈가 어머니 합창단, 두 돌을 지낸 남성 사자후 합창단이 활동하고 있다. 해마다 월 1회씩 1년 단위로 전국의 불교문화재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문화재답사단도 운영한다. 수원 출신의 화가 나혜석씨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나혜석 예술제' 등도 준비한다. 이외에도 서도회와 타 종교인들까지 참여하는 다도회도 수원포교당의 자랑이다. (031)255-2692.

연극으로 범회수준 업그레이드

삼광사 백중과 초파일 등 대법회가 열리는 날, 삼광사에 가면 어김없이 전문 배우들이 열연하는 연극을 관람할 수 있다. 연극의 감동과 부처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관세음보살> <목련존자> <심청전> <호랑각사> 등의 수준 높은 연극이 무대에 올려져 지역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삼광한글학교를 비롯, 꽃꽂이, 다도, 서예, 한문학당, 요리, 청소년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 등 주부, 청소년, 교사,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강좌와 행사는 물론 초청 선사화전, 사진전 등 다채로운 전시도 수시로 열고 있다. 또한 교사 연수 기관으로 삼광문화연수관을 설치, 불교와 전통문화가 접목된 강좌를 개설해 교사들에게도 열린 사찰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051)808-7111

불교만화잡지·오케스트라 주목

대구 관음사 대구관음사의 문화포교는 영남불교대학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지난 92년 창립한 불교대학이 지역포교의 견인차가 된 중심에는 불교만화잡지 발간, 대형 오케스트라 운영 등 주요 콘텐츠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지난 2000년 창립한 불교만화연구소는 다양한 불교만화 소재 개발과 함께 격월간 만화잡지 '불교만화이야기'를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불교만화공모전을 통해 불교만화가 발굴 및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영남불교대학 오케스트라는 올해 초 창단 첫 공연으로 확장 우학스님이 직접 쓴 금강경에 작곡가 이달철씨가 곡을 붙인 '칸타타 금강경'을 선보였다. 교향악단과 합창단 등의 협연으로 열린 이날 공연은 지역 불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053)471-0991



◀지난 8월 부산 삼광사 지관전서 백중을 맞아 공연된 '호랑각사' 연극무대.



◀지난 1월 수원포교당 만불보전에서 열린 '젊은 불자음악인들을 위한 음악회'.



◀'군인의 날'을 맞아 지역민들과 미항사스님들이 '미항사 장군선화'를 주제로 벌인 가장행렬.

부처님께로 더 가까이...

성불 천수화

천수 천안 관자재보살님의 현신을 믿습니다

선물에도 최고!
비행에도 최고!



최저의 단가, 최고의 품질을 개진하여, 건국의 비구니스님과 보살수행신도님의 웅망정진을 위하여, 새롭게 탄생한 성불 천수화입니다.

* 최초의 모델이므로 사이즈가 230 ~ 250까지(10mm단위)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 가격 : 30,000원
온라인 계좌번호 : 우리은행 2111-284306-13-101 예금주 : SW 상사

2000만 불자들의 필수품 성불 천수화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보면 "일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그 음성을 듣고, 찾아와 즉시 괴로움을 없애 주고 모두를 해탈케 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고 했습니다. 또한 관음경에 이르길, 중생이 괴로움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을 한마음으로 외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들을시고 모두 해탈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SW상사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성불 천수화는 수행하는 보살님을 위해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명작입니다. 가족이 아닌 신소재 피혁으로 제작되었기에 부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성불 천수화입니다.

천수화는 신는 순간부터 소원을 성취하고 우주만물의 복을 부르는 음자를 앞쪽에, 깨우침을 상징하는 깃발을 자크에, 신발 안쪽 뒷면에 "성불합시다"의 문구를 넣어 만행 하기전에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신화입니다. 천수화는 신는 순간부터 자신감과 영혼을 느끼게 하는 케주얼 풍 최고급 신발입니다. 특히 타사 제품과는 달리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세련되게 디자인된 불자들의 필수 만행화입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경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신화입니다. 천수화는 신는 순간부터 자신감과 영혼을 느끼게 하는 케주얼 풍 최고급 신발입니다. 특히 타사 제품과는 달리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세련되게 디자인된 불자들의 필수 만행화입니다.

총판 및 불교용품 딜러 모집

(주)SW상사 080-331-1818, 051-334-2494, 314-5618